

# ‘삼베’ 마지막 실을 꿰는 여인들의 이야기를 엮다

### 보성 여성 송순남·박종례·박영남의 기억·경험·인생 전남여성가족재단, 구술로 엮어 10월 말 책 발간 예정

전남여성가족재단이 삼베 생산과 유통의 중심지였던 보성 북부 지역 여성 3인 송순남(1928년생), 박종례(1946년생), 박영남(1954년생)의 기억과 경험, 인생을 구술로 엮어 책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24일 재단에 따르면 이들은 평생 삼베를 짰으며, 중국에서 값싼 인조 섬유가 몰려 들어오면서 점점 일거리가 사라져 현재는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이들은 “그 시간이 고되고 삶은 곤궁했으나 베짜는 풍습이 사라지는 건 서운하다”며 “돌아보니 인생의 절반이 길쌈일 정도로 삼베가 지극히 낯익지만 자식들을 번듯이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준 고마운 존재”라고 입을 모았다.

재단 관계자는 “보성 지역 3인의 이야기에 듣다 보면 삼베와 함께 했던 노동의 시간들과 함께 머느리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다양한 지점에서 희생과 억압을 감내해왔던 여성들을 발견할 수 있다”며 “그러나 결국 전통을 지금껏 지켜온 것은 여성들이었고, 상대적으로 그 주체성이 조명받지 못했다는 사실과 마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오랜 경험을 갖고 있는 송순남 할머니는 “동네 여인들이 모두 뒷산으로 화전놀이를 갔지만 밥하고 베 짜는게 삶의 전부라 단 한번도 가지 못하게 한”이라고 말한다. 평생 떠올리기도 싫을

만큼 지독한 노동에 시달려온 송순남씨의 삶을 통해 가부장제 속 여성의 위치와 노동에 대해서 기억하게 한다.

박종례씨는 “베를 팔아도 돈 한 푼을 안주고 노예로 부려먹었다. 밥해먹고 길쌈하고 밥해먹고 길쌈하며 방의 질반을 차지하는 베를 놓고 길쌈을 하라고 했어”라며 베를 짜며 지나온 세월 속 서러운 기억에 흠뻑 젖어들기도 했다.

박영남씨는 “가난이 씨가 있다? 이 가난을 물리쳐야 되겠다. 그 생각을 마음 속에서 떠나보낸 적이 없어. 우리 살아온 길은 말로 해도 다 못하지. 그래도 저는 삼베 선택을 잘해서 내 평생 살면서 지금에 와서 이렇게 누리고 살고 이게 다 삼베를 내가 했던 대가다 싶고, 감사해요.”라고 말한다.

재단은 지난 2011년부터 ‘전남여성생애사’와 ‘가고싶은 섬, 여성 이야기’를 통해 그동안 기록되지 못했던 여성들의 이야기를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2022년은 역사의 기록 및 자료가 취약한 ‘보성 삼베’를 주제로 전남 보성 북부 지역의 역사와 여성의 삶이 교차되는 지점에 집중해 이야기를 기록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의 자문을 맡은 이찬식 보성 삼베관 대표는 “보성 삼베는 신이 주신 마지막 선물이다. 삼베를 지켜온 여성의 이야기를 담은 이 책자를 계기로 모두가 보성 지역의 삼베 전통을 기억



임정자 작가가 송순남(1928년생) 할머니에게 평생 삼베를 짜며 겪은 삶의 이야기를 들으며 기록하고 있다. 임 할머니 등 보성 북부지역의 여성 3명의 삶을 담은 전남여성생애구술사는 오는 10월 말 전남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 및 유튜브 공식 계정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하고 새로운 역사로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안경주 전남여성가족재단 원장은 “사라져 가는 것들의 안부를 묻는 마음으로 삼베를 지켜온 여성들의 기억들을 듣고 엮어낼 예정”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사회적, 정치적 영역에서 기록되

지 못했던 여성들의 이야기가 전남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여성생애구술사 스토리북 및 영상생애구술사는 오는 10월 말 전남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 및 유튜브 공식 계정 등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불편사항 해결·공무원 비위 감시

### ‘도민 감사관’ 9월20일까지 모집

전남도는 도민생활의 불편사항과 공무원 비위 등을 감시할 도민 감사관을 오는 9월 20일까지 한 달간 공개모집한다.

이번 공개모집은 2020년 10월부터 활동 중인 제9기 도민 감사관 141명의 임기가 9월 만료됨에 따라 새롭게 활동할 제10기를 선발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도는 신청 도민에 대해 적격여부를 판단, 시군별 인구 수에 비례해 150명 내외를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된 도민 감사관은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까지 2년 간 활동한다.

신청 대상자는 ▲각종 민간·사회단체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 도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할 도민 ▲그밖에 감사에 식견이 풍부한 도민이다.

전남도와 시군 누리집에서 신청서 등을 내려받아 도 및 시군 감사부서에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도민 감사관으로 위촉되면 도민의 생활 불편사항과 공무원 비위, 부조리, 불친절 행위 제보, 지역 현안사업 등의 추진상황 점검과 개선건의 제시, 그 밖의 도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건의 등의 활동을 한다. 도민 감사관 제도는 2003년 명예감사관으로 시작해 2018년 도민참여형 감사제도 강화를 위해 도민 감사관으로 명칭을 변경해 운영 중이다. 지금까지 총 717명의 도민 감사관이 활동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외국인주민 무료 법률상담서비스

### 전남이주민통합지원센터 등 2곳

전남도가 언어소통과 법·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법률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외국인주민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외국인주민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는 전남 동·서부 권역별로 나눠 ‘전남이주민통합지원센터’와 ‘광양외국인노동자센터’에서 이뤄진다. 올 들어 상담 실적은 총 1563건으로, 분야별로 출입국 관련 317건, 임금체불 228건, 통·번역 지원 257건, 산재(의료) 139건 등이다.

상담은 주로 임금체불과 같은 노무 사건부터 출입국 등 일상 법률까지 외국인 관련 법적 사건 모두를 다룬다.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등 통·번역, 의료 상담과 보호시설 연계까지 가능하다.

상담신청은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결혼이민자 등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누구나 가능하다.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도 가능하고 센터 방문이 어려우면 찾아가는 출장상담을 이용할 수 있다.

정광선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전남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이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무료 법률상담과 통·번역 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특히 언어와 문화차이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외국인주민이 적극 이용할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녹색에너지연구원-영광군, 에너지신산업 발전·육성 업무협약

녹색에너지연구원(주동식 원장)이 23일 영광군청에서 영광군과 ‘영광군의 에너지신산업 발전 및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번 협약식은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녹색에너지연구원이 주관하고 전남도·영광군이 참여하는 ‘노후 전력기자재 교체기 기반 구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후속 에너지 전략사업 발굴 및 추진 지원 등을 위해 마련됐다. 노후 전력기자재 교체기 기반 구축사업은 해외수출을 위한 GIS, 케이블, 수배전반 등 노후된 기자재를 교체해 국비 41억원과 민간자본 18억원을 투입하는 전국 최초로 기반

구축 육성을 위한 사업이다.

주동식 녹색에너지연구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그동안 축적된 연구 역량으로 영광군 에너지신산업 발전에 도움을 줄 방침”이라며 “앞으로 에너지신산업이 지역전략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녹색에너지연구원은 전남도에서 출연한 에너지 전문 연구기관으로, 해상풍력,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다양한 연구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 고등학생 ‘노벨 여름 일일캠프’

### 전남과학고·광양고 등 13개교 17팀 논문 작성법 등 수강

전남도가 지난 20일 여수 청소년수련관에서 ‘2022년 노벨캠프’에 선정된 고등학생과 지도교사 등 13개교 17팀 85명을 대상으로 여름 일일 캠프를 개최했다.

여름 일일캠프는 노벨캠프 각 팀의 과제별 연구·개발과 논문보고서 작성 방법 및 과제별 연구 방향 사전 컨설팅을 위해 마련됐다. 또 학업에 지친 학생들이 잠시 머리를 식히도록 머그컵 만들기, 캘리그래피, 우드카빙 등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구성했다.

논문보고서 작성 방법은 지영래 순천대 물리교육과 교수가, 선행연구분석 컨설팅에는 화학·생명과학·환경·인공지능 4개 분야별 박사학위 과정 연구원들이 참여해 이공계 분야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열띤 강의를 진행했다.

캠프에 참여한 박재은(전남과학고 2년) 학생은 “일일캠프가 과제 연구·개발의 방향성을 구체화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팀원들과 함께 체계적으로 준비해 연말 보고에서 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재광 전남도 희망인재육성과장은 “올해 처음 시작한 여름 일일캠프가 노벨캠프 연구과제 완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에는 인문계까지 확대하는 고등학생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노벨캠프는 전남도의 ‘새천년인재육성프로젝트’ 16개 사업 중 이공계 분야 우수 인재 육성 사업이다. 2025년 본격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올해 수료하는 학생에게는 2학점의 고교학점이 인정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70**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